

설 특별방역·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시, 2개 분야 11개 항목 55개 과제 실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전통시장 캠페인 등

광주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개 분야 11개 항목 55개 과제를 담은 이번 대책은 공백없는 코로나19 대응과 소외 이웃 지원 대책 등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나기를 위한 현안 중심의 대책들로 마련됐다.

먼저 설 특별방역대책 분야는 ▲설 특별 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3개 항목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종교·문화시설 및 각종 사업장 등 9개 유형 4만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설 연휴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유통매장 등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한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운영하고, 집단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상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관리 시설도 평상시와 같이 운영한다.

더불어 자가격리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 긴급대응반 구성, 성묘 등 원거리 무단이탈 대비 이송체계 구축, 불시 점검 실시 등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안정대책 분야로는 ▲소외이웃 지원 대책 ▲민생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소통 및 수송대책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수돗물·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항목 41개 과제가 추진된다.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이웃 지원대책으로,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며 취약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에게도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공직자들도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생현장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명절 대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제수 품목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실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귀성객을 위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는 25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성묘객 편의를 위해 지원 15번과 용전 86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한다. 또 영락공원을 지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김일용 시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만남보다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보내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전남서 민주 선대위 연이어 출범 대선 참여 독려...지방선거 경쟁 치열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위원회들이 잇따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두관·송기도)는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출범식과 함께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참석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관영)도 이날 복당 인사들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국민통합위는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복당 인사 환영회를 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면담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상임위원장 조정식)도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앞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재명·이낙연)는 지난 5일, 민주당 선대위 미래소통위원회

(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10일,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13일 광주에서 연이어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에 뜻을 모았다.

전남에서도 이날 '문화강국 전남위원회'가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남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한 문화강국 전남위원회는 '예향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류 평화와 공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예술의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의 정책 전환'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다수의 위원회를 띄우며 참여자들에게 직함·역할을 부여하고 대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의 많은 정치권 인사들도 선대위 직함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근산·오선우 기자

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에 최진석 교수 영입

정권교체 사명 '삼고초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중앙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최 명예교수의 고향인 전남 함평의 자택을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눈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앞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시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진영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해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에 이데올로기가 잡혀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며 "(최 명예교수가) 캠프의 사상적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환경과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대중에게 열심히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안 후보를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도덕적 결함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도덕적 결함이 하나도 없는 분만이 대한민국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철학자가 험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갔다"며 "그런데도 안 후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주철현, 이재명 후보 승리 홍보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선회선거대책위원회 여수갑 지역위원회(상임위원장 주철현 의원)가 이재명 대선 후보 필승을 위해 거리 홍보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18일 여수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시민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현역 도·시의원과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3개 권역에서 9개 조로 이재명 후보 대선 필승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위는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의 핵심 가치인 '공정, 성장, 혁신'을 담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인 내달 14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여성 시의원과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5일 장날마다 파란 유니폼과 목도리를 착용하고, 3~5만원 상당의 단체 장보기



를 하면서 시민들 민원을 청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도 전파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위는 온라인 선거 활동을 위해 SNS 단톡방 개설과 시민 SNS 릴레이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철현 위원장은 "당원들은 '90% 이상 득표'를 목표로 국내·외 대선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거리에서부터 전파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승리로 기필코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각오로 여수에서부터 대선 승리의 물결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실종된 분들과 사망하신 분, 고통받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광주시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정동 아파트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진단과 더불어 안전과 품질을 대폭 강화하여 우려와 불신을 끊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절박한 심정과 환골탈태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고 안전 최우선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일동